일본의 면백색 생지 산지

불황 중에도 기대되는 소재가 개발되고 있어

일본의 면 백색 생지 산지(綿白色生地産地)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산지의 경기를 리드(lead)하는 상품이 나타나지 않아 고통을 당할 만큼 경기가 좋지 않자, 중소 직포업의 기업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, 시장의 흐름을 잘 타면서 계속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여 신규주문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기업과, 일감이 없어 세워 놓은 직기가 늘어나 고민하는 기업으로 이극화(二極化)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생지 산지에, 팔리는 상품이나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신상품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. 이들 상품은 모두 대형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,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직포공장이 기업으로서 지켜야 하는 고객을 위한 자세나, 빈틈없는 경영과 최신설비의 이점뿐 아니라 축적된 신상품 개발력을 잘 살려 수주생산(受注生産)을 계속하고 있다.

이들의 배경에는 유통시장이 이극화하여 직기에서 떼어낸 상태 그대로인 '룸 · 스테이트(loom state)'의 가격상승이나 독자적인 기술에 의한 고급화에 희소가치도 작용하여 수주 공임이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작년에 리드 상품이었던 스트레치(stretch) 소재는 경쟁적인 차별화의 노력으로 그 동안 품종이 다양화되었고, 많은 수요가 있는 태번수의 능직이나 평직은 값싼 해외수입품에 밀려나고 있으며, 올해의 일본내 시장에서는 세번수(細番手) 직물이나 코듀로이(corduroy), 도비직물(dobby 織物), 이중직(二重織), 피케(pique) 등으로 다품종화하고 있다. 또한 원사의 특징을 잘 살리거나,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함으로써 고급감(高級感)을 풍기게 하거나 색다르게 제

직한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.

금년의 춘하절 부인용 소재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80수 쌍사나 100수 쌍사를 가스 · 신징(gas singeing)한 보일사(voil絲)를 경 또는 경 · 위에 사용한 강연(强撚) 보일은 수요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상품으로서 종전보다는 1, 2급 정도 격상한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, 원사준비 등의 생산공정이 한정됨에 따라 생산량이 많을 수 없어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 발주자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문수량도 조심스럽고 적어서, 소로트 단납기발주(小lot 短納期發注)를 되풀이하게 되며, 그런대로 명(命)이 긴 상품이 될 것 같다.

30수나 60수의 삼합연사(三合撚絲)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신상품으로서, 삼합연함으로써 직물의 품위가 향상되어 생지값도 비싸고, 능직이나 도비직으로 상품화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되는 상품이 될 것이다. 앞으로 이 상품이 시장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면 이 아이템의 변화상품도 많아질 것 같다.

한편 수요가 그동안 2년간이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'고밀도 이중직'은 일부에서는 소비자가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고는 하지만, 원사나 직물조직을 변화시켜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강연보일이나 초고밀도 스트레치(超高密度 stretch)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(variation)이 있다. 이들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공장에서는 4 5개월분의 주문을 받아놓고 있으며, 장차도 계속 순조롭게 주문을 받게 될 것이다.